

<2010년 8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>

1. 지식자는 알아도 못 하고 실천자는 모르고 행한다.
2. 지식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니 늘 배우기는 하는데 행하는 데 둔하고, 실천자는 행하는 데만 주력하니 나의 마음을 모르고 행한다.
3. 너희가 마음의 눈을 팔면 그 순간에 나는 다른 곳에 가 있다. 나는 신이다.
4. 절벽 길을 갈 때 한걸음, 한걸음 눈으로 꼭꼭 찍으면서 걸어가듯이, 삶의 길을 갈 때 마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걸어가야 한다.
5. 대 우주의 눈은 태양이듯, 소 우주인 인생의 눈은 너의 육의 눈이 아니냐.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안 보이듯, 네 눈이 없으면 세상이 안 보이지 않느냐.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멀리 보는 눈이 있으니 네 마음의 눈이다. 빛으로 150억 년을 가도 못 가는 천국을 너희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. 그렇게도 멀리 보는 마음의 눈인데, 어찌 네 옆에 있는 나를 못 보느냐. 내가 네 눈을 보지 못하게 가렸느냐. 육의 눈도 감으면 누가 있어도 안 보이듯이, 마음의 눈도 감으면 내가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.
6. 육의 눈을 뜨는 데 정신을 쏟고 신경을 써야 떠지듯이, 마음의 눈을 뜨려면 역시 네 정신을 쏟고 신경을 써야 된다.